

KAI·한화 vs 대한항공·LIG

1.8조 전자전 항공기 개발 격돌

방사청, 연구개발 입찰 절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시스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이 각각 '워팀'을 이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 항공기 개발 사업을 놓고 격돌한다. 설계부터 체계통합, 감항인증, 안보리스크 까지 고난도 역량이 중요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까지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중형 민항기 G6500을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맡는다. 사업자 최종선정은 다음 달 진행 될 예정이다.

현재 KAI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군의 전자기 스펙트럼(EMS) 전력 확보와 방산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신규 전투기 제작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장시간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 전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먼저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감항인증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KAI는 지난 30년간 KT-1, T-50, 수리온, LAH, KF-21 등 국산항공기 5개 기종 20여 종의 파생형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P-3C, E-737, 백두체계 2차 등 항공기 개조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의 전자전기 예상도. /대한항공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

항공기 개발·감항인증 경험 강점
항전장비 체계 중대형 기종 확대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

전자전 장비·민항기개조 역량 갖춰
정부인증 격납고 등 기반시설 보유

산기 개발로 확보한 항전 장비 체계 통합 능력을 중대형 기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KAI는 항공기 최적화 설계부터 체계통합까지 자체 수행이 가능하고 유인기 시험 평가 및 군민 감항인증 전환 경험을 갖춘 유일한 기업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 개발을 거치며 사업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갖춘 점도 부각되고 있다.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은 전자전 장비 개발과 민항기 개조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에서 민항기를 군용기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확보했으며, 2020~2023년에는 B777 여객기 10대와 A330 여객기 6대를 화물기로 성

공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 시험비행 인프라,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보안·도장 설비 등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정부 지원 없이 독자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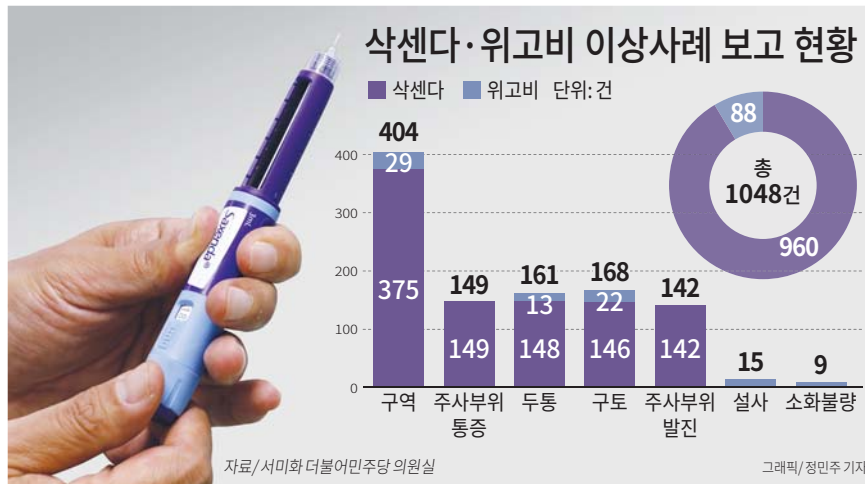
LIG넥스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FA-50RWR, 2024년 페루 해군 함정 전자전 솔루션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의 우려도 존재한다. 대한항공은 과거 백두체계 1차 사업에서 항공기 개조를 맡았지만 독자적으로 설계·체계통합·감항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미국 L-3사와 협력했다. 실제 설계와 비행시험은 L-3사가 미국 내에서 수행했고 미국연방항공청(FAA) 추가형식증명(STC)을 확보했다. 해외업체 감항 지원에 다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자전기 감항인증은 단순히 소형 군용기 제작 경험만으로 확보되는 능력이 아니다"며 "원제작사의 민간 감항성을 유지하면서 군 감항성 입증에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 양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입증된 15인승 이상급의 감항획득 및 운영 경험을 가진 업체는 국내에서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체계 설계와 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감항 역량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안보리스크까지 겹쳐있는 만큼 감항인증·체계통합 분야가 최종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삭센다·위고비, 구역 등 이상사례 1708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 처방건수 111만여건 확인
정상·저체중자 '무분별 처방' 문제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신고가 국내에서만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의 처방 건수가 총 111만 6694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으며,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의원실은 가장 큰 문제로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

됐다는 점을 꼽았다.

서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BMI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원실이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은 ▲구역(404건), ▲구토(168건), ▲두통(161건), ▲주사부위 소양증(149건), ▲주사부위 발진(142건), ▲설사(15건), ▲소화불량(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복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최근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위고비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비만환자가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BMI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부적절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물가상승률 '둔화'... 먹거리는 '고공행진'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신비 인하... 1.7% 상승 그쳐
축산물 7.1%, 가공식품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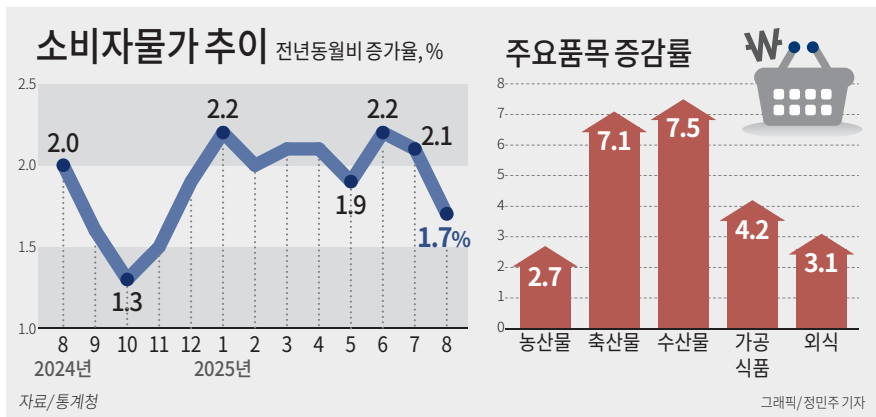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참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숨은 금융자산 18.4조... 환급률 30% 그쳐

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현황'

파인·어카운트인포 앱서 확인가능

숨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18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찾아간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공개하며 환급률 제고 방안을 내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5조9000억원, 2022년 16조3000억원, 2023년 18조원에 이어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거래 예적금 14조10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 1조4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최근 3년간 금융권 평균 환급률은 28.9%에 머물렀다. 업권별로는 카드사(78.7%)가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사(44.1%), 생명보험사(39.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은행권의 경우 광주은행

(26.2%), 카카오뱅크(15.4%), 국민은행(15.1%) 등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높았지만, 한국SC은행(0.31%), 신한은행(1.77%), 경남은행(2.17%)은 저조했다. 카드사에서는 신한카드(84.4%), KB국민카드(83.9%), 우리카드(82.4%) 등이 높은 환급률을 기록했다.

금융소비자가 숨은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본인 계좌와 포인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약 4조9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이 더 많이 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